

'친정'처럼 포근한 매춘여성 쉼터

지역사회에서 일한다

14

동두천·의정부 두레방

매춘여성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두레방'이 기지촌 매춘여성의 호응을 받으면서 경기도 의정부·동두천시 등 지역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다.

지난 86년 경기도 의정부시 미군부대 부근 송산지역에 기독교 장로회 여신도회가 중심이 된 '두레방'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 이 지역 매춘여성들은 '또 하느님 운운하면서 우리를 죄인 취급하겠지' 하는 마음에서, 일반인들은 '매춘여성 대상 성공 프로그램은 성공한 적이 없지' 하는 마음에서 별다른 기대를 갖지 않았다.

그러나 두레방은 5년여 동안 매춘여성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벌였고 지난해 12월에는 동두천시에 또하나의 '두레방'을 새로 마련하는 등 매춘여성의 쉼터로 확고하게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두레방'이 매춘여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는 것은 매일 열리는 '영어교실' 때문이다. "무슨 사회단체가 미군상대 '매춘영업'을 더 잘 하라고 말까지 가르쳐준단 말인가?" 하고 의아해할 수 있지

만 유복림 간사는 "영어를 잘 못해 미군들에게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여성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자는 취지"라고 밝힌다. 공부를 하면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를 사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다.

그동안 '두레방' 영어교실에서 공부한 매춘여성 회원들은 약 2백여명. 운이 좋아(?) 미군과 결혼해 미국으로 간 여성이나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여성들은

따로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시간나는 대로 들르는 회원들의 웅어리진 이야기를 들어주고 도덕적인 얘기대신 그들의 현실에서 일처리를 도와준다. 며칠 전에는 임신한 한 매춘여성과 긴 토론 끝에 낙태수술을하기로 결론짓고, 병원에도 함께 가고 써늘한 방에 연탄불을 지펴 미역국도 끓여먹었다.

'결혼식을 올려놓고 도망가 버린 미군' '동거하면서 전혀 생활

고 있는 여성들이 쏟아놓는 인생 이야기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구구절절하다.

86년 두레방이 생길 때 산파역할을 한 문혜림씨는 평민당 문동환의원의 부인으로 매일 아침 봄비는 시외버스를 타고 이곳에 출근, 오전·오후 두차례 영어를 가르치기를 6년째 해왔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이라도 하는 이런 쉼터가 전국 매춘지역마다 하나씩은 생겨야

임신·배신등 절절한 고민거리 상담 주력 미군상대 분쟁해결도...혼혈아 양육 힘써

대부분 두레방을 '친정' '친정어머니'로 부른다.

"직업상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관계를 끊고 살아야 하는 여성들이 대부분이기에 두레방을 가족처럼 여기는 거죠. 두레방은 우리를 죄인 취급하지 않습니다."

10여년 동안 동두천에서 영업해온 한 매춘여성의 말이다.

두레방의 또 하나의 주요 사업은 상담이다. 특별히 상담실을

비를 대주지 않는 미군' 등의 문제를 상담하러 오면 같이 분개하기도 하고, 법적인 문제는 미군 부대를 찾아가 해결하기도 한다.

숫기가 없어 '영업' 전에 '러미날' '옥타리돈' 등 감기약을 환각제 대신 1백알 정도씩 먹고 혼미한 의식상태에서 일하는 여성, 수십번씩 낙태를 하면서도 피임약은 구토가 나서 못먹고 루프를 하면 피임이 된다는 사실도 모르

한다"고 말하는 그가 이들과 함께 6여년 동안 생활하면서 가장 가슴아프게 여기는 점은 "사회가 이들을 이곳으로 몰아넣고 빠져나갈 수 있는 아무런 대안도, 작게는 마음의 안식처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이런 매춘여성 쉼터는 서울 용산구 '막달레나의 집'과 '두레방' 두 군데뿐이다.

지난해부터 나이가 너무 들어 계속 '영업'하기 힘든 여성들을 위한 '두레방뽕집' 운영, 미군에게 버림받아 '영업'을 하면서 혼자 혼혈아를 키우는 여성들을 위한



기지촌의 상징인 '동두천'에 새로 자리잡은 '두레방'은 앞으로 독서토론회 등의 모임도 만들 예정이다.

'어린이놀이방' '공부방' 운영도 뜻있는 대학생들의 참여로 점점 활기를 띠어가고 있다.

6년전 1명의 간사와 1명의 영어교사로 시작된 뒤 현재 탁아교사, 뽕기술자, 간사 등 7명이 두 곳의 사무실에 상근하면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혼혈아를 기르는 법' 등의 특강을 마련하기도 하고, 국제결혼한 부부나 동거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추석'과 '추수감

사절'에 대한 설명회를 마련, 서로의 전통에 대해 똑같이 존중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다.

미군철수와 함께 '두레방'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것이 '두레방'이 바라는 목표다. 몇년 동안 '영업'을 하던 한 여성이 새로 생긴 동두천시 두레방에서 올해부터 간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두레방은 이들 매춘여성이 참 주인이 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

(김미경 기자) (끝)